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 2023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

금융감독원 | 2023.07.12

'23년 6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 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함.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0.1조 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1.8조 원)·저축은행(0.1조 원)·여전사(0.7조 원) 위주로 2.4조 원 감소함. 제2금융권 감소폭이...

##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 | 2023.07.13

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칭 비밀번호 요구, 해외결제 빙자 스미싱, 가족납치 명목 금전요구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가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금융회사 인허가 신청의 시작, START 포털(인허가 사전협의 포털)...

금융감독원 | 2023.07.17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3. 7. 17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함. 이를 통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사전협의 신청 과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 2023.07.17

2023. 7. 17(월),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음.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됨. 두 번째 안건으로는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이 논의됨. 마지막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금융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보고함

##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3.07.17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특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최근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데이터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7.18

2023년 6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으며, 데이터 조회 1억 7,103만 건, API 활용신청 15,62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금융감독원 2023.07.20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하는 디폴트옵션 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 집중

금융감독원 2023.07.19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됨.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고, 금융기관...

## '23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2023.07.24

'23년 상반기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24조 5,370억 원(주식 2조 7,354억 원, 회사채 121조 8,016억 원)으로, 주식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 31억 원(8.7%) 증가함.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635조 8,660억 원(CP 195조 6,397억 원, 단기...

##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금융감독원 2023.07.27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 등에 따른 장거리, 낮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철(7, 8월)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함

##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2023.07.26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함.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함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수행된다

금융위원회 2023.07.20

금융정보분석원은 '23. 7. 20(목)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 이번 방안은 금년 초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금융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됨.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은...

##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2023.07.25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 2023.07.17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힘.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2023.07.1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함.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보건복지부 2023.07.23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힘.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 보험사,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가능

손해보험협회 2023.07.13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됨. 소비자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던 제출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업무 자동화가 실현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7.12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 2023.07.19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